북남관계의 대전환 2018

평양출판사

북남관계의 대전환 2018

주체111(2022). 4.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할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10년간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특히 주체107(2018)년에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장을 펼치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용단으로 민족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뜻깊은 새해 신년사에서 2018년을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한다고 엄숙히 선언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정초부터 북남관계의 대전환을 위한 주동적이며 과감한 조치들을 련속 취하시였다.

하여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대회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힘을 떨치였고 예술인들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민족적화해와 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키였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들이 추진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였다.

온 민족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전례없이 진행된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내외에 뚜렷이 보여주었다.

우리 겨레에게 커다란 격정과 환희를 안겨주며 다발적으로, 련속적으로 펼쳐진 이 경이적인 화폭들은 장장 70여년을 헤아리는 민족분렬의 력사, 불신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안아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의지와 탁월한 정치실력, 애국애족의 대용단이 안아온 소중한 결실이였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속에서는 《2018년 세계정치무대의 주인공은 단연 **김정은**위원장》, 《대범하신 백두혈통 **김정은**위원장님》, 《**김정은**위원장님은 호탕하시다.》, 《**김정은**위원장님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면서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종횡무진하고있다.》 등 경탄과 찬사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왔다.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주체107(2018)년의 력사적사변들을 가슴뜨겁게 체험하며 북과 남의 온 겨레는 애국애족의 화신이시며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이 땅우에 자주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

애국애족의 대용단,
넓으신 포용력으로

주체107(2018)년 새해 신년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수도 있을것입니다. 한피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갈것입니다.

김정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남측지역을 방문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성원들을 만나시였다. - 주체107(2018)년 2월 12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남조선방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남측지역에서 축하공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돌아온 삼지연관현악단 성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주체107(2018)년 2월 12일 -

삼지연관현악단 남측지역에서 공연 진행

남녘동포들의 목소리

《통일이 빨리 되여 이런 공연을 자주 보면 좋겠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자는 노래를 들으면서 통일생각을 다시하게 되였다.》

《이번 공연의 열기가 휴전선에도 전달되여 철조망이 봄눈처럼 녹아 남북이 하나가 되기를 기원한다.》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오래동안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서 봄이 온듯한 느낌이다.》

민족의 기상을 과시한 우리 태권도인들의 시범출연

남녘동포들의 목소리

《뿌리는 하나이지만 각기 다른 길을 걸어온 남북 태권도가 올림픽무대에서 한자리에 선것은 처음이였다.》

《뛰여난 실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북 태권도시범단은 <조국통일>이라는 구호로 기합을 넣으며 남북이 하나가 되는것을 념원하였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화합의 메세지를 전한 남북 태권도가 서울에서 다시 뭉쳤다.》

《남북태권도가 합동시범출연을 통하여 남북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뜨거운 통일열기를 더해준 우리 응원단

남녘동포들의 목소리

《<미녀군단>이 <올림픽스타>로 되였다.》

《북 응원단이 <메달을 딴 선수>처럼 세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올림픽에 출전한 유명한 선수들마저 부러워할 정도이다.》

《올림픽에서 남측대표팀과 북 응원단의 <남남북녀>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북 응원단이 남측대표팀을 응원하는 함성이 남측 관중들의 웨침과 합쳐지면서 응원열기가 절정에 달하였다.》

《북 대표단의 참가로 평화올림픽 개최》, 《상상도 못한 일》 (남조선과 세계언론들 격찬)

《북 예술단의 공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보여주듯 관객들은 추운 날씨에도 공연을 5~6시간 앞둔 점심 직후부터 공연장에 모여들기 시작해 긴 줄을 지어 입장을 기다렸다.

국내언론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유럽언론의 취재진도 운집해 이번 공연에 대한 국내외의 큰 관심을 반영했다.》

《추운 날씨였지만 공연을 관람하고 나온 시민들은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입을 모았다. 공연이 끝났지만 이곳은 설렘과 흥분이 가득한 축제분위기가 이어지고있다.》

《북 태권도시범단은 마치 군무를 련상케 하는 차분하고 절도있는 동작들과 우렁찬 기합소리로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발차기와 손칼치기 등 날렵한 동작으로 두꺼운 송판과 기와장들을 단번에 박살내여 관중으로부터 련속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북측시범출연은 실전을 방불한다. 북의 태권도는 갈수록 난도가 높아지고있다. 태권도고유의 위력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북 태권도시범단이 <아리랑>노래가락에 맞추어 흥겨운 분위기속에 시범출연을 이어갔다. 유난히 우렁찬 기합소리가 쩌렁쩌렁 울릴 때마다 객석에서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주민들이 저저마다 북 태권도시범단의 화려한 공연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남북 태권도시범단이 하나된 모습을 연출했다. 좌석이 가득찬 공연장에서는 관객들의 환호성이 멈추지 않았다.》

《분단의 세월만큼 다를줄 알았던 <둘>은 같은 얼굴과 같은 말을 가진 <하나>였다. 부딪쳐 쓰러졌어도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같은 언어로 <괜찮냐?>고 물으면 얼굴을 붉힐 일이 없었다.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안았다.》

《력사적인 올림픽 첫 단일팀은 불굴의 정신으로 민족의 기상을 엿보임으로써 관중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주었다.》

《단일팀은 남북의 화합을 위한 새로운 력사를 만들었다. 다른 어떤 대표팀보다 더 뜨거운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유일한 분단국가가 체육으로 하나가 된 장면은 세계에 잔잔한 감동을 안겼다.》

《북의 응원단이 평창을 휘젓고있다. 북 응원단의 응원이 올림픽경기보다 더 재미있다. 북 응원단이 올림픽을 장악하는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북 응원단이 <인간올리브가지>로 칭송을 받고 있다. 특히 북 응원단이 남측과 국제사회의 끝을 모를 강렬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평가받고있다. 북 응원단이 주는 전체적인 <신비감>으로 하여 사람들을 더욱더 열광하게 만들고있다.》

《북 응원단은 남측주민들이 어려서부터 잘 아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지지자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남측주민들은 북 응원단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의 매력에 빠져들어 <유명연예인>처럼 대우하였다.》

숭고한 동포애의 힘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접견하시였다. - 주체107(2018)년 3월 5일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특사대표단을 접견해주신
소식에 접한 남조선 각계층의 칭송의 목소리

《반만년력사의 찬란한 도약이다.》

《대범하신 백두혈통 **김정은**위원장님》

《**김정은**위원장님은 호탕하시다.》

《**김정은**위원장님 조국통일준비 완료》

《**김정은**위원장은 대단한 책략가이시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여 **김정은**위원장과 단 한번이라도 사진을 찍어보고싶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남측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 주체107(2018)년 4월 1일 -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온 남측예술단 성원들의 칭송의 목소리

《최고의 영광이다.》

《오늘을 일생 잊지 못하겠다.》

《김정은위원장님께서 <봄이 온다>는 제목이 좋다고 하시면서 이제 가을에는 <가을이 왔다>는 제목으로 공연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정말 뜻깊은 말씀이였다.》

《깜짝 놀랐다. 너무도 뜻밖의 행운이였다.》

《김정은위원장님을 뵙는 순간 <봄이 왔구나.> 하는 느낌이 온몸을 감쌌다. 너무 환하시고 너무 멋지시고 너무너무 친근하시다. 오늘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아안은 날이다.》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주시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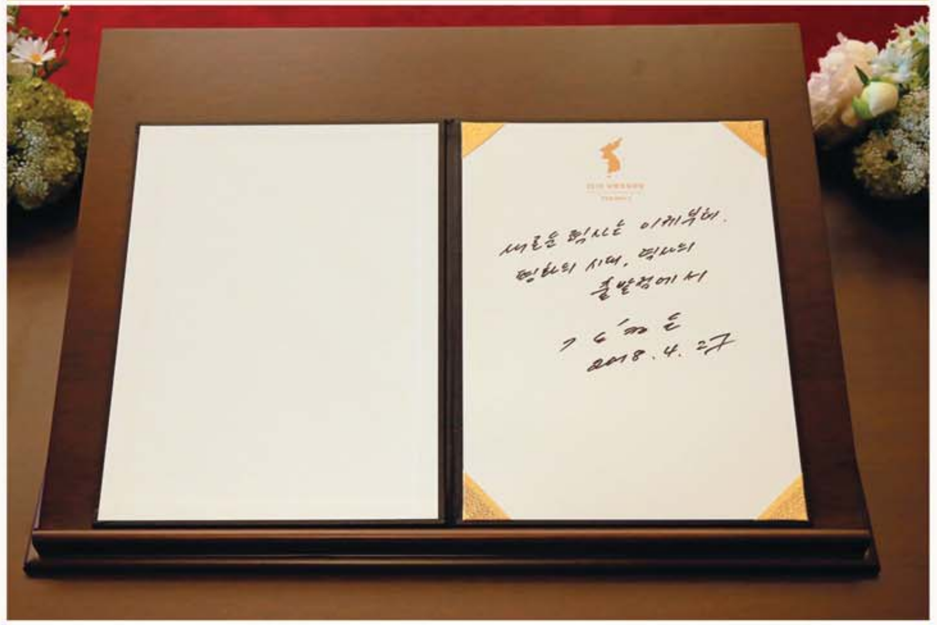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만남

- 주체107(2018)년 4월 27일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문재인대통령이 따뜻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회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기념식수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서명하시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조선반도에서 력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북남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북남수뇌들은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였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북남수뇌들은 랭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북남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북과 남은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것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① 북과 남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북남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리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여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당국자가 상주하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북과 남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래왕과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의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북과 남은 민족분렬로 산생된 인도적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북남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 서해선철도와 도로들을 련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것이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북과 남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일대에서 확성기방송과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서해 《북방한계선》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호상협력과 교류, 래왕과 접촉이 활성화되는데 따른 여러가지 군사적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쌍방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문제를 지체없이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인민무력상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중에 먼저 장령급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나갈것이다.

조선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것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력사적과제이다.

① 북과 남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불가침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군사적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북, 남, 미 3자 또는 북, 남, 중, 미 4자회담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④ 북과 남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조선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북과 남은 북측이 취하고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북남수뇌들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론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은**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문재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남측지역방문을 환영하여 문재인대통령이 만찬을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작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준시간을 다시 제정할데 대하여 제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시면서 문재인대통령과 북과 남의 표준시간을 통일하는 문제를 론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북남수뇌회담장소에 평양시간과 서울시간을 가리키는 시계가 각각 걸려있는것을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북과 남이 하나로 된다는것은 그 어떤 추상적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르고 갈라져있는것을 하나로 합치고 서로 맞추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시면서 민족의 화해단합의 첫 실행조치로 현재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두개의 시간을 통일하는것부터 해나가실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의 해당 부문에서 이에 대하여 검토승인할데 대하여 제의하신데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 《평양시간을 고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정령에서는 평양시간을 동경 135°를 기준자오선으로 하는 9경대시(현재의 시간보다 30분 앞선 시간)로 고치며 그를 2018년 5월 5일부터 적용한다는데 대하여 밝히였다.

공화국은 이 첫 실행조치로 판문점선언을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리행해나가려는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준시간을 다시 제정할데 대하여 제의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준시간을 다시 제정할데 대하여 제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남측지역을 방문하시면서 문재인대통령과 북과 남의 표준시간을 통일하는 문제를 론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북남수뇌회담장소에 평양시간과 서울시간을 가리키는 시계가 각각 걸려있는것을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북과 남이 하나로 된다는것은 그 어떤 추상적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르고 갈라져있는것을 하나로 합치고 서로 맞추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시면서 민족의 화해단합의 첫 실행조치로 현재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두개의 시간을 통일하는것부터 해나가실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국내의 해당 부문에서 이에 대하여 검토승인할데 대하여 제의하신데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 《평양시간을 고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2232호 주체107(2018)년 4월 30일

평양시간을 고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북과 남의 시간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평양시간을 동경 135°를 기준자오선으로 하는 9경대시(현재의 시간보다 30분 앞선 시간)로 고친다.
2. 평양시간은 주체107(2018)년 5월 5일부터 적용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 북남수뇌회담장소에 걸려있던 평양시간과 서울시간을 가리키는 시계

⇒ 평양시간을 고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관한 신문보도자료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지지환영한 남조선인터네트글자료

《멋있었다. **김정은**위원장님》

《**김정은**위원장님 다시 봤다. 좋았다.》

《**김정은**위원장님은 거침이 없었다.》

《말은 스스럼없었고 행동은 자신감에 넘쳤다.》

《**김정은**위원장님은 자연스럽고 여유가 있어보였다.》

《솔직하면서도 대담하였고 유모아적이였다.》

《력사에 길이 남을 세기적인 순간이다. 박수!!》

《진짜로 보기 좋았고 멋있었어요.》

《참으로 가슴벅찬 감동을 주는 순간입니다.》

《아, 진짜 가슴 찡하다. 1년만에 이렇게 바뀌나.》

《내 생에 이러한 현장을 본다는것이 가슴 벅차다.》

《정말 감격스럽다.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 믿어의심치 않는다. 기도하겠다.》

《통일되여서 미국과 일본에 큰소리 뻥뻥 치며 살았으면 좋겠다.》

판문점수뇌상봉과 관련한 일화

ㅇ《김정은열풍》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니신 탁월한 위인적 풍모가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커다란 화제거리로 되면서 사회전반에 《**김정은**열풍》을 일으키였다.

남조선 각계층은 **김정은**위원장께서 남조선대통령과 만나는 동안 내내 자신감있고 개방적이며 국제적지도자로서의 세련된 모습을 로출하였다, 때로는 솔직하고 대담하였으며 때로는 여유와 유모아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호탕하고 호방한 성격으로 알려진 **김정은**위원장은 역시 화끈했다고 격찬하였다.

더우기 **김정은**위원장의 파격적면모가 극적으로 드러난 때는 사전계획에도 없었던 남조선대통령을 이끌고 북측땅으로 넘어서는 장면이였다, 두 수뇌분이 판문점분리선을 함께 넘나드는 상징적이고 력사적인 《깜짝 퍼포먼스》가 **김정은**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되였다, **김정은**위원장께서 기습제안으로 외교적수완을 과시하였다, 파격의 련속이였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ㅇ 단연 인기가 된 평양랭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담장에서 옥류관 평양랭면과 관련한 말씀을 하신 후 남조선사회는 온통 평양랭면이야기로 들끓었다.

인터네트에는 《오늘따라 평양랭면이 당긴다.》, 《옥류관 료리사까지 데려왔는데 그 사람을 붙잡아서 못가게 해야 한다.》, 《4월 27일은 평양랭면의 날》, 《자고 일어나보니 랭면이 세상을 지배하였다.》, 《오늘 무조건 랭면 먹는다.》, 《기차타고 평양랭면 먹으러 갈수 있는 날만을 기다린다.》등의 글들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평양랭면이 트위터에서 가장 인기있는 단어로 되였으며 남조선의 평양랭면식당들은 찾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정치인, 경제인, 주민들이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국수집들에 찾아가 국수를 먹으면서 《국수는 일이 잘되라고 생일날에 먹는데 회담의 성공을 응원하기 위해 이곳에 모두 왔다.》고 흥분된 심정을 터치였다.

식당을 찾은 주민들은 《평소보다 사람이 많아 최소한 한시간이상은 기다려야 할것같다.》, 《평양랭면을 먹으러 왔는데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고 볼부은 소리를 하는 반면에 식당종업원들은 《**김정은**위원장님 덕분에 오늘 손님들이 식당에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언론들은 《남북수뇌회담의 성공을 점심식사로 응원하는 분위기》라고 평하였다.

미국의 CNN방송은 옥류관 랭면을 소개한 특집을 방영하면서 《평양랭면이 남북간 음식외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평하였다.

ㅇ 이채로운 명절풍경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으로 하여 온 남조선땅이 평화를 기원하는 이채로운 명절풍경으로 흥성거렸다.

경기도 고양시의 24개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은 기자쎈터주변에서 각자가 지참한 통일기들을 끈으로 련결하여 인간띠잇기행진을 벌리고 통일비빔밥을 만들어 즐겁게 들었으며 부산시의 한 주민은 길가는 시민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대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한나산소주와 대동강맥주를 섞은 《통일주》를 내놓는 등 평화통일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비행장과 철도역, 병원과 은행 등 공공장소들에 설치된 TV주변은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시청하는 시민들로 꽉 차있었으며 거리에는 회담의 성공을 바라는 현수막들이 줄지어 내걸렸다.

언론들은 림진각에서부터 제주도까지 TV앞에 모인 주민들이 반세기가 넘게 이어온 대결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를 함께 빌었다고 하였다.

ㅇ 흥분과 열기로 가득찬 기자쎈터

북남수뇌회담전부터 경기도 고양시 《킨택스》(《한국국제전시장》)에 마련된 기자쎈터는 각국에서 모여온 3 000여명의 기자들의 열띤 취재열기로 들썩이였으며 북남수뇌분들의 판문점선언이 발표되자 분위기는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실내에 설치된 대형TV로 북남수뇌분들이 선언문에 수표를 하시고 악수를 한 뒤 포옹하는 장면이 나오자 기자쎈터는 삽시에 감격의 함성과 흥분의 박수소리로 끓어번졌으며 연방 사진기의 샤타를 누르는 소리들이 울려나왔다.

기자들은 《**김정은**위원장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쎈터내부가 떠들썩하거나 조용해지군 하였다. 숨을 죽여 지켜보다가 힘찬 박수를 보내기도 하였다. 폭소를 터뜨리기도 하였다.》라고 내부상황을 상세히 전하였다.

력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

- 주체107(2018)년 5월 26일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또다시 상봉하시고 회담을 하시였다.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관련한 남조선언론자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판문점선언의 채택으로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주신데 이어 한달만에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신것은 판문점선언의 확고한 리행으로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흐름을 더욱 추동하는 특기할 사변으로 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김정은**위원장님께서 직통전화를 통해 얼마든지 문재인대통령과 대화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통일각까지 나와 수뇌회담을 진행하신것은 세간의 상상을 뛰여넘는 파격의 파격으로서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외에 뚜렷이 과시하신것으로 된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김정은**위원장님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면서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종횡무진하고있다.》, 《남북정상회담정례화를 뛰여넘는 극적인 번개만남을 통해 앞으로 남북관계가 상상할수 없는 더 큰 파격으로 이어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판문점선언리행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일각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놓았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동포애적풍모에 대한 감동은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계속 울려나왔다.

북남수뇌회담이 비공식적으로 진행된것으로 하여 의전이 대폭 축소된 실무형회담이였지만 북은 영접으로부터 시작하여 통일각입구에 의장대를 정렬시키는 등 례의를 갖추어 문재인대통령을 맞이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김정은**위원장님은 문재인대통령이 통일각에서 방명록에 글을 남기자 박수를 크게 쳐주시면서 기뻐하시였고 문재인대통령이 온것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판문점회담의 명장면중 하나가 문재인대통령이 10s동안 깜짝 우리 땅을 밟은것이였다는 재치있는 롱담으로 회담 전 기간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끄시였다고 전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이 갑작스레 찾아와 최대의 국빈으로 성대하게 맞이하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좋은 결실이 꽃피고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가을에 평양에 오면 성대하게 연회를 준비하여 맞이하겠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진심어린 말씀에서 남측을 뜨겁게 환대하는 동포애의 정을 느낄수 있었다고 하였다.

회담을 마친 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뜨겁게 포옹하시면서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손을 흔들며 배웅하시는 모습에 접한 남조선의 각계층은 전 세계에 민족의 정과 힘이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가를 뚜렷이 보여준 력사적인 장면이였다고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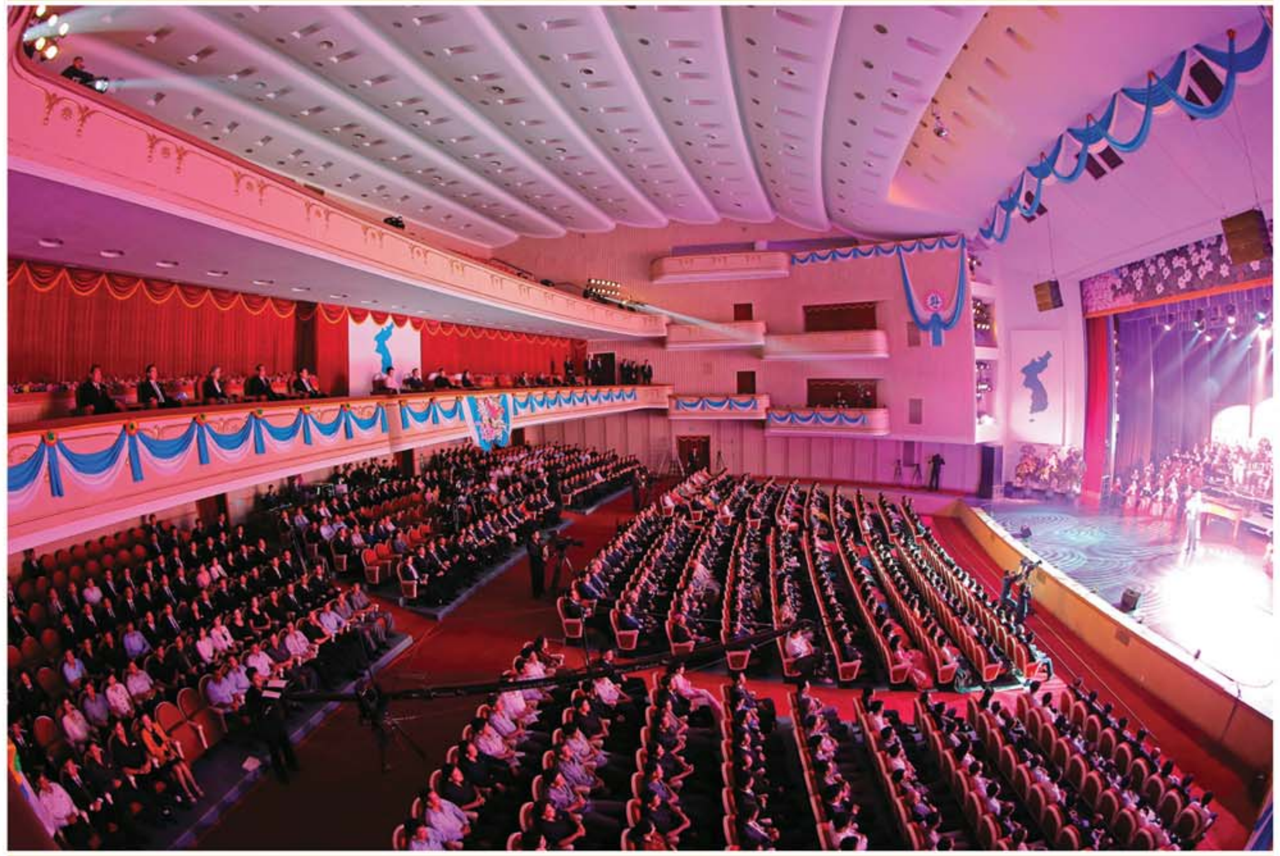
력사적인 9월평양상봉

- 주체107(2018)년 9월 18일-20일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을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문재인대통령사이에 회담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예술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의 평양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의 숙소를 방문하시고 2일회담을 진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9월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이 《9월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한 공동발표를 하시였다.

9 월 평 양 공 동 선 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북남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후 북남당국사이의 긴밀한 대화와 협상, 다방면적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남관계를 민족적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북남관계발전을 통일로 이어갈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론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수뇌회담이 중요한 력사적전기가 될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북과 남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적대관계종식을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이번 평양수뇌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리행하며 조선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합의서의 리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무력충돌방지를 위한 항시적인 련계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올해안에 동, 서해선철도 및 도로련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가지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북남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북과 남은 전염성질병의 류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금강산지역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안에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적십자회담을 통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교환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북과 남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2020년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여름철올림픽의 북남공동개최를 유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10.4선언발표 11돐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인민봉기 100주년을 북남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국무위원장은 문재인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대 한 민 국 　 대 통 령

김 정 은 　　 **문 재 인**

2 0 1 8 년 　 9 월 　 1 9 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을 위해
삼지연에서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비행장에서 문재인대통령을 바래워주시였다.

경기도 파주시 림진각에서 력사적인 9월평양상봉소식에 접하고 환희와 격정에 넘쳐있는 남조선대학생들

력사적인 9월평양상봉에 대한 취재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기자쎈터

력사적인 9월평양상봉을 격정속에 지켜보는 남조선의 정계인들

9월평양상봉과 관련한 남조선언론자료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을 계기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천출위인상과 고매한 덕망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경탄과 흠모심이 전례없이 높아졌다.

남조선의 각계층들은 시시각각 전해지는 평양수뇌상봉소식에 흥분되여 **김정은**위원장은 파격적이고 거침없으며 솔직하고 소탈하였다, 겸손한 화법과 세심한 배려로 겨레의 심금을 꽉 틀어잡았다고 하면서 불과 9개월사이에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흐름을 통채로 바꾸어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의 불씨를 살리였으며 《**김정은**식외교의 독특한 면모》, 《천재적인 외교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시였다고 찬양하였다.

그러면서 《2018년 세계정치무대의 주인공은 단연 **김정은**위원장》, 《**김정은**위원장, 세계평화의 명실상부한 구세주로 등장》, 《통이 크신 **김정은**위원장님 참 멋지다!》, 《**김정은**위원장님 직접 나오셨군. 얼마나 영광인가? 태양과 포옹하다니 눈물난다.》, 《모든 인민들이 **김정은**위원장을 믿고 신뢰한다. 더이상 극우세력들의 롱간에 놀아나지 말자.》, 《**김정은**위원장의 진솔함, 본인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겸손함 등 너무 례의바른 자세를 볼 때마다 기대이상이다.》, 《**김정은**위원장님 정말 훌룡합니다. 평화통일을 이루자!》라며 남조선의 각계층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경모와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평양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고 돌아간 남측수행원들은 저저마다 《**김정은**위원장의 풍모는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똑같았다.》, 《**김정은**위원장을 직접 만나보니 북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리유를 알수 있었다.》, 《**김정은**위원장은 서방국가의 지도자들보다 더 열려있고 소탈하고 굉장히 자신감에 넘쳐있었다.》, 《연설도 잘하고 매우 진취적이며 시대에 맞는 사고를 하고있었다.》, 《방향을 옳게 정하고 거침없이 돌진하는 지도자이시다.》,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북주민들의 생활을 빨리 향상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있다.》는 등으로 평양방문소감을 격정에 넘쳐 토로하였다.

해솟는 백두산은 내 조국입니다
제주도 한나산도 내 조국입니다
백두와 한나가 서로 손을 잡으면
삼천리가 하나되는 통일이여라
아 통일 통일 통일이여라

백두에서 조국통일 해맞이하고
한나에서 통일만세 우리 함께 부르자
민족의 뭉친 힘 온 세상에 떨칠 때
태양조선 하나되는 통일이여라
아 통일 통일 통일이여라

(노래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 중에서)

북남관계의 대전환 2018

구성 및 편집	김화명, 허 혁
촬 영	김남철, 로남철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 쇄	주체111(2022)년 4월 30일
발 행	주체111(2022)년 5월 2일

ㄱ-1537ㄷ